



#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보험약제과-1055(2025. 3. 25.) -1116(2025. 3. 27.) 호
2.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산청군 및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기존)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추가) 경상북도(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예외사유 :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4.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

최근 3월 중순부터 발생한 대형산불 관련입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조제시 DUR 점검 중 발생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5.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의 다목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하였던 처방(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조회·신청 ⇒ 내가 먹는 약! 한눈에")에서 환자 본인 동의(휴대폰 인증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소실된 약의 원활한 재처방 등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청구관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7개 시도, 전국보건소, (사)대한의사협회장, (사)대한병원협회장, (사)대한약사회장, (사)한국병원약사회장

주무관 김충열 행정사무관 이예원 보험약제과장 송양수 전결 2025. 3. 31.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1138 (2025. 3. 3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4 팩스번호 044-202-3934 / [neoscape1@korea.kr](mailto:neoscape1@korea.kr) / 비공개(5)